

❖ 거가대교 가덕영업소
- 노옥순 여사님

식당에서 가끔 까치발을 하고 창을 넘어
요금소 풍경을 보면 눈에 띄는 모습들이
있습니다. 연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
습.. 뭘 좁는지 허리 숙여 청소하는 모습..
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 너
무 아름답게 보입니다. 특히 노옥순 여사
님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힘든 일을 함께
하는 직원입니다.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
근무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빛나는
분입니다.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좋은 기
회가 생겨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!

- 거가대교 가덕영업소 사무장 박성률 -



당신은 성원의 자랑입니다!

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..
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.
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
그 바람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건
정말 어렵고, 훌륭한 일입니다
1등 기업 성원이 노옥순 여사님을 응원합니다!

